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 대전지방기상청, 기상기후산업 이해관계자 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청장 박경희)은 5월 16일(화) 대전지방기상청 회의실에서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해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산업 이해관계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지방기상청장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기상기업,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세종·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한국기상산업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기후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기상기후데이터와 활용 서비스 소개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한국기상산업협회의 소개 및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 기상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제언을 경청하는 등 종합 토론을 통해 기상기후산업의 협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지역 기상기후산업 활성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고, 더불어 기상청과 기상기업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전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유민수 (042-363-3540)
		담당자	주무관	임영목 (042-363-3543)

